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내마음 우뚝 밝으면 법계가 들썩

15면에서 계속

영원히 배를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저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서 만나리, 그리하면 영원한 밝음이 있으니" 하고 어제 어제 바라아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려면 한 생각. '아, 일체 만물만생이 불이 아니고 내 몸 속에 있는 것도 불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생각 끄떡하면 죽어서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이니라. 생시에 알고 있다면 꿈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고, 죽어서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뛰어서 한 생각을 하면 강도들도 따로 없느니라. 산이 아무리 높다한들 높은 산이나 얕은 들이나 깊은 강물이나 불 속이나 어디에도 타죽는 법도 없고, 빠져 죽는 법도 없고, 떨어져 못가는 법

마찬가지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질로서 아주 거대하게 즐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지금 조절을 하니가 그렇지 만약에 별성들이 와르르르 일어났다 하면 불바위가 얼마나 굉장할 것입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들을 붙여서 말하는 것 말고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나. 내가 벗어나야 아무데로 가도 간 흔적이 없죠.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면 흔적이 있든 없든 벗어나지 못하는 거니까요. 한발짝만 떼어도 벌써 흔적이 나오는데 어릴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고에서 벗어나라 하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좀더 잘 생각해서 일 하면서도 생각이 일어나면 무조건 거기다 말고 조용한 시간이 생기면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시라 이 얘길



그림·최주현

놓는 공부는 내가 빠지는 공부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 주인공 모습 드러나지 않아

이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큰노릇을 못하고 문지기나 하는 입장이지요. 불바위를 보면 타죽을까봐 그 소용돌이 속을 못들어가기 때문에 영 맛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밝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서 영원한 자유의 밝음을 얻었다면 죽고 살아가 따로 없이 자유인일텐데 말입니다. 우린 평생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마음 빼놓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성은 생명의 근본이며 그 생명의 근본이 있기에 마음을 낼 수 있어서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내는 거는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요. 불과 법이 틀립니까, 어디, 생명이 있으면 마음을 낼 수 있고, 마음을 낼 수 있으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당연하죠.

중간 거는 아가 관습으로 인해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입력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살 수 없고 어느 곳에 있어도 자기 한대로 잡하면 항상없는 감옥에 갇혀있어 같하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물질로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잡혀있는 줄로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 갇혀있지요.

내가 내려왔다고 한 것은 여러분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무슨 위라고 해서 뭐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래라 해서 아래가 아닙니다. 뒤에 안보인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내가 높아서 여기 앉았습니까? 높은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도 지금 그런 실행을 하면서 실천을 하고 갑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무시해서도 안되고, 똥똥이 고기덩어리만 봐서도 아니됩니다.

예전의 일체 선사들, 일체 부처님들께서 어떠한 50%의 행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마음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리를 배우면 일체 평등공법으로써 내쳐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철보살공법,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내고 보배로운 생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셨듯이 항상 말하지만 중지로 원한다면 내가 중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리입니다. 마음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마 빨리 알아 들으리라 봅니다. 내 마음 하나에 즉대할지라도 불꽃을 안에서 나가는 그 에너지가 어디로 나가는지? 나가는 그 에너지도 그렇지만, 한데 모였다, 흩어졌다, 한데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작용을 하는 그 자체가 무슨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들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근기에 따라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법입니다.

불바위의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사는 그 에너지가 나가서 배출이 되면 또 생산이 되는 것이죠. 두 부부가 생각을 안하고 생산을 안했다면 여러분 자손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별성도 역시

번 여쭙보려고 합니다.

문 시장 바닥에 나가든, 여기를 오든, 집안에 있든, 회사를 나가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거기서만이 들고 낸다는 그 믿음이 선다면 그게 주장자입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맘대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기 보배, 그런데 이 보배가 집이 비어서 주장자가 있는데도 옆동에서 자꾸 쫓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모든 걸 나오는 대로 무조건 거기다 말고 살아 이거죠.

문 돈 문제도 관하면 해결됩니까

문 두 달 전에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해서 법공양 페이지를 매번 자세히 정독하고 있습니다.

왜 진작 구독하지 못했나 할 정도로 많은 감명과 스님 말씀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인공한테 맡기고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맡기고 관하라'는 게 물질적인 것(구체적으로 '돈')에도 적용이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이 어을 민기일인데 돈은 없고 그렇다고 어디서 빌릴 곳은 더더욱 없고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이런 상황도 주인공이 알아서 해결해 줄까요?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해도 주인공 지리에 놓고 지켜보라 하셨는데도, 놓고 관하는 사이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해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고 싶지 않거든요.

명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 마음은 시공을 초월해서 아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이 육신의 삶도, 산해대지 우주까지도 거론할 건데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입니다. 한마음입니다.

일체 만물만생, 삼천대천세계는 마음 바탕에서 돌이 아니게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식 공용 공심 중재로서 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하나 우뚝 서 밝으면 우주 법계가 들썩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절실한 믿음입니다. 물에 피가 베일만큼 절실한 믿음이라면 죽고 사는 걸 떠

이왕지사 한번 죽지 두번 죽나하는 믿음으로 무겁게 놓고 맡길 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지켜보는 도리가 있습니다.

주인공 의심하는 마음들어요

문 큰스님, 전 최근들어 공부를 조금 해보고자 했는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정말 진실히 마음을 내고 믿고 맡기고 나가니깐 진짜 주인공이 잘 이끌어 주는 것을 느끼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그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도 어느새 보면 또 이상한 마음이 나고 이러면 안된다 하면서도 의심이 가

남의 부모 자식도 평등하게 보고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저 이익되게 해야

고 그래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안된다 하는 것도 다 제 편견 인걸 알면서도 다 주인공이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본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가끔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건 제 안에 답이 다 있지만 주인공이 아예 그런 시험을 하지 않았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항상 믿고 나가겠습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문 항상 말씀드리고 또 드리지만 모 든 것은 다 한구멍에서 나오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나는 것도 거기, 원망스런 생각이 드는 것도 거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자리에 다가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놓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대로 놓고 맡기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된다 하는 의심이 가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되 놓고, 잘 가다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나온 자리에 되 놓으라는 것이지요. 시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나 뿐이잖아!' 하고 놓고 말입니다.

이 놓는 공부는 어차피 내가 속 빠지는 공부입니다. 몰락 놓고 맡기는데 거기에 '나'가 붙어서야 그걸 어디 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그런 저런 생각이 드는 것을 모조리 주인공 자리로 돌려 놓고 맡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나'가 빠지고, 그것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빠지고 주인공이 얼굴을 내밀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 주인공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생각을 내야 마음 진화되고 넓어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선다면 그게 주장자

수 있고,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때는 길을 가다보면 기다란 물체가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알을 까서 뒷 콩무늬에 질질 끌고서 두껍게 옮겨다 놓고는 홀로 살작 떨어놓아요. 그런 걸 하나 보더라도 '아! 하다못해 이런 미물까지도 이렇게 묘한 것...' 요만한 미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인간까지 진화해서 자식들을 낳아서 덮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우면서 어디를 나가서 안들어오기만 해도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하는 한데로 또 같이 모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 대의적으로 본다면 따로 없다는 얘깁니다.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살 뿐입니다. 그러니 착을 두지 마시고 그저 사람으로만 대하시고 어쩌다 하듯만 자고 와도 '너, 어디서 자고 왔나? 전화번호 대라' 하지 마세요. 뭐 틀림 없죠. 그러나 애들은 그런 식으로 대하면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고 올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그랬는지, 너 배 고프지 않느냐"하고 받아서 안아준다면 나가서 자라고 사정을 해도 나가 자지 않을 겁니다.

대접을 해줘야 하는데 착을 두고 내 손에 들은 어떠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나이를 더 먹었다고

해서 자기가 생산해 놓은 것을 자기 거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절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남의 자식이든, 내 자식이든, 남의 부모든, 내 부모든 평등하게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보는 대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있으면 배 풀어주고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무수상보시를 해서 그저 믿음 이익되게 해야 합니다.

가끔 학생들이 물어서 "스님 이리러 한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그것이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든 평등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한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비를 베풀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내 자식, 내 자식, 내 부모, 내 부모가 있었습니까? 모였다가 바랄걸같이 흩어지고 스쳐가는 것이 인생 아닌가! 우리는 방향적으로서 한철 캠프 나와서 살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흩어져서 할 인생이 아닌가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가만히 볼 때, 때에 따라서 내가 먼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물끄러미 쳐다보면 그쪽에서 먼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꽃도 저녁이면 오므라듭니다. 저녁이면 오므라들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해가 다 졌다. 이제 잠 자자" 하거든요. 모두가 잠을 자는 건 아닙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잔다 안잔다 없이 그냥 있는 소나무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적으로 나타난 것이 푸르

름을 가져온 겁니다. 그게 다 마음의 뜻이 있지요. 마음이 오고 갑니다.

나무에 맞아죽을 팔자를 가진 사람이 나무에 목신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 "나도 너하고 벗이요, 영원히 친구지" 하니까 목신으로 인해서 죽을 건데 그 풀이 아니라 바위에 목신이 오하려 도와주더라 목신으로 인해서 죽을 하는 사람에게 "풀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먹어도 같이 먹어 먹자"한다면 고마워서 밤낮을 모르고 일할 겁니다. 아마, 그러듯이 아니 자기한테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와 풀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일을 자기일 하듯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죽지 않습니다. 목신도 자기요, 자신도 자기요, 관세음도 자기요, 지장도 자기요, 모두 자기인 것이죠.

무엇이 주장자 인지요

문 말씀하셨던 빈집 이라든가 주장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기 위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마음이 허해서 빈 집이 되면 세균도 들어오고, 먼 엉뚱한 생각도 들어와서 정신도 어지럽겠다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서, 마음이 편안한 방법으로 어떠한 뭐가 들어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게 주장자인지, 아니면 선원에 열심히 다니고 경도 열심히 해서 가까이 간다는 그런 의지가 주장자인지, 고요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주장자인지 다시 한

나 여쭙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모두들 잘 믿지를 알기에 잘되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나는 놓고 맡기는데 왜 잘 안되느냐고 합니다.

놓고 맡기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되고 안되고 떠나서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감사하게 되 놓고, 안되는 것은 또 안되는 것대로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주인공 네 몫이 아니냐' 하고 되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다만 지켜볼 뿐이지 되는 것만 법이고 안되는 건 법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놓고 맡겼으니 어떻게 되겠지' 한단다가 '될대로 되라' 하고 내 관개치는 것도 아닙니다. 놓고 맡기고 나는 현실에서 열심히 심부름하고 뛰어다니다. 이 몸뚱이는 그냥 시자로서 뛰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다만 시자로서 일체를 주인공에 놓고 맡기게 될 때에 불이 들어오는 도리가 있습니다. 말하지만 무한량의 한마음 발전소와 나는 이미 가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가 마음으로 스위치를 올리는 게 바로 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놓고 맡겼는데 왜 안 될까, 놓고 맡기면 어찌 살라는 하신다면 그건 스위치를 올린 게 아니라 올린과 관련 불이 들어올까? 안들어 오면 어쩌지? 하는 격이니 제대로 통신이 되질 않게 됩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문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은 누가 됩니까? 아는 것을 떠나 있습니까? 아는 것과 더불어 있습니까? 번뇌를 여이고 깨달음에 이른 분이 후생에서 왜 또 다시 수행을 해야 합니까? 깨달음의 길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서 그칩니까?

인개와 같은 생의 길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큰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문 누구나 다 부처될 자격이 있다고 했지요. 다만 무명에 덮혀 제 근본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중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 만법을 들고 낸다는 것을 굳게 믿어 제 뿌리에 일체정계를 놓고 가면 깨달음은 다 못 깨달은 다들 떠나서 그대로 여여하다 못 깨달은 다들 떠나서 그대로 여여하다 놓아야 하는데 그렇질 못하니가 거듭 거듭 수행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다고 깨달음에 오고 감이 있다가 나 얻을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하나 죽으면 그대로 깨달음이고 부처자리입니다.

합친 주인공